

데스크 시각



송기등  
체육부장

해발 3000m를 넘어 어느 정도 고소에 적응해갈 즈음, 로지(여행자 숙소) 난로 가에 웅기증기 모인 도보 여행자들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갔다.  
 “(고소가 없는 걸 보니) 혹시 조성 중에 고산족(高山族)이 있는 것 아냐?”  
 “내가 고산(孤山) 윤산도 14대손일세.”  
 “우리 동네 앞산이 고산(高山)이요...(웃음)”  
 최근 15박16일 일정으로 नेपाल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BC) 트레킹을 다녀왔다.  
 नेपाल 수도 카트만두에서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해발 2800m에 위치한 루크라에 도착해 해발 5550m의 칼라파타르까지 갔다가 다시 출발점인 루크라로 돌아오기까지 꼬박 12일을 걸어야 하는 힘든 여정이었다.  
 ‘검은 바위’라는 의미의 칼라파타르는 세

히말라야 바람이 전하는 말

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해발 8848m)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뷰 포인트로, 전문 산악인이 아닌 일반인이 걸어서 오를 수 있는 지상 최고의 높이에 자리하고 있다. 에베레스트의 턱밑까지 걸어가는 여행인 셈이다.  
 올라갈 때는 고소 적응을 위해 서서히 고도를 올린 탓에 목표까지 8박9일이 소요됐지만, 하산길은 3박4일에 불과했다.

희박한 공기 속으로

인간의 신체는 자신이 사는 환경에 적합하게끔 세팅돼 있다. 그런 까닭에 트레킹의 첫 번째 관문은 ‘저질 체력’이 아니라 ‘고산병’에 적응하는 것이었다.  
 칼라파타르 트레킹 코스에 베이스캠프라 할 수 있는 남체 바자르의 고도는 3440m. 루크라에서 하루 반나절 거리인 이곳부터 고산병 증세가 나타난다.  
 우선, 평소보다 희박한 산소량 때문에 두통이 시작된다. 설사나 불면증에도 뒤따르는데, 심하면 죽을 수도 있어 최악의 경우는 트레킹을 포기하고 신속하게 하산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인간의 신체는 수만 년에 걸친 진화과정에서 변화된 환경에 재빨리 적응하는 법을 터득하지 않았던가?  
 3000m 대에서는 4000m 대가, 4000m 대

에서는 5000m대의 고산병이 염려됐지만 다행스럽게도 심각한 증세는 찾아오지 않았다.  
 수목한계선을 지나 나무 한 그루 자랄 수 없는 황량한 평원을 걷고, 돌투성이 비탈길을 가쁜 숨을 몰아쉬며 수시간째 오를 때는 지구라는 행성이 혼자 남겨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걸으면 걸을수록 자신의 안으로 침잠(沈潛)해 들어가는 사색여행이었다.  
 지난 2005년 일찌감치 히말라야 트레킹을 한 소설가 박민선은 사색편지를 묶은 ‘비유니 향기롭다’에서 이렇게 묘사했다.  
 “이번 여행에서 나는 내가 살아온 경로를 역순으로 거슬러 온 것입니다.”  
 카트만두 뒷골목에서 나는 30대, 욕망을 향해 분주하게 달려가던 나를 만났고, 두크라나 남체바자르에서 나는 존재론적 반뇌에 빠져 보냈던 나의 20대를 만났으며, 탕보체~광보체~딩보체 마을을 차레로 지나쳐 온 비좁은 고원 길에서 끝간데 없이 더 먼 곳을 그리워 했던 나의 외로운 10대를 만났고, 마침내 로부체를 거쳐 칼라파타르까지 갈 때 내 영혼은 어머니의 자궁 속에 이르렀습니다.”  
 티없이 짙푸른 하늘 빛깔과 투명한 햇살 아래 설산(雪山)을 바라보며 걷는 내내 몸은 힘들었지만, 머릿속은 어느 때보다 그렇

게 편할 수가 없었다. 속도를 다루는 경쟁적인 도시문명 속에서 살며, 갖게 되는 온갖 고민으로 부터 해방된 때문이리라.

행복감 잃은 도시인

돌잡게도 4000m대의 출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주민들은 야크를 길들이고, 감자를 재배하며 살고 있었다.  
 마침내 당도한 칼라파타르는 누가 쌓았는지 돌담이 있고, 그 위로 툰다(라마불교 경전을 적은 작은 천)가 펼쳐졌다. 냉기를 잔뜩 품은 뽀얀바람 속에서 눈 앞의 에베레스트를 한참 바라봤다. 무얼 바라고 여기까지 왔던가?  
 “몸과 영혼이 정화된 듯한 느낌입니다.” 동행한 한 초등 선생님의 말이다.  
 산길을 걸으면서 새삼 내가 이미 너무도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눈 앞의 목표에만 열중해 삶의 여유와 본성, 행복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작은 깨달음을 얻었다.  
 트레킹 내내 가장 많이 들었던 नेपाल 말은 ‘비스파리~!’였다. ‘천천히 (걸어라)’라는 의미다. 도시 속 삶에서 잃어버린 단어가 아닐까? 그리고 일상에 한뼉쯤은 희박한 공기 속에서 설산 아래를 ‘천천히’ 걸어보자.  
 /song@kwangju.co.kr

은펜클럽



옥영석  
농협중앙회 팀장·2005년 수상자

직장인이 가장 즐거워하는 날을 꼽으라면 공휴일, 월급날, 휴가일 등이 먼저 나오겠지만 무두일(無頭日)도 썩리멘들처럼 빠질 수 없이 부담없는 날 중의 하나다.  
 무두일은 조직의 수장, 즉 사장이나 감독이 없는 날을 일컫는 조어(造語)다. 리더가 모를지가 그 조직의 목표와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일진데, 그런 이가 없는 날이 즐거운 날이라면 리더와 구성원들의 사이는 끈끈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무두일과 조직문화

일 것이다.  
 한 때 구성원들이 스스로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도와주는 ‘슈퍼리더십’이나, 목표를 수행하는데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지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심기는 리더십’이 최고로 여겨지던 적도 있었지만, 회의를 하나 토론회를 하나 리더가 좌지우지하는게 우리네 조직문화다.  
 특히 구성원의 동질성이 강하고 내부 응집력이 큰 조직일수록 집단내의 강박적인 분위기가 의사결정과정에서 리더와 다른 의견을 말하거나 대안을 제기하기 어렵다. 이는 거부감적 문화가 많이 남아있는 우리 나라뿐 아니라,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춘스몰비즈니스(FSB)는 몇 년 전 CEO들의 나쁜 습관 5가지를 소개한 바 있는데 첫째가 승리에 대한

집착이란단.  
 최고가 되길 원하는 리더는 지나치게 경쟁적이며 실패를 두려워하고 “내가 열심하라는 만큼 직원들도 열심히 하라”고 다그치면서 자발적으로 우리나라와 할 창의력과 업무능률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둘째, 무의식적으로 but(그러나), no(아니요)와 같이 부정적인 단어를 자주 사용함으로써, 언제나 자신만이 옳다는 착각에 빠져 부하들의 직언을 막고, 조직에 충실한 직원을 떠나게 한다는 것이다.  
 셋째, CEO들은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자신감을 갖는 경우가 많아 부하들의 의견을 묵살하기 일쑤여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묻히게 한다는 것이다.  
 넷째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추구한다는 것이다. CEO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감언이설을 늘어놓게 마련이어서 자신의 행동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 어렵고, 입맛대로

만 조직을 이끌어가게 마련이다.  
 마지막으로 과정보다 결과에 집착한 나머지 성공의 포로가 되어 권한을 위임하기보다 사소한 부분까지 움켜쥐고 결정하려 들으로써 스스로를 혹사시켜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건강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것이다.  
 조직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자신감이 구성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게 되고, 내가 하는 만큼 당신들도 해야 한다는 사고는 구성원들의 입장에선 소름끼치는 일이다. 수많은 구성원들을 거느리다 보면 자신의 의견에 호응하고 웃어주는 사람이 많아져 일할 맛도 나겠지만, 이견도 대안도 없이 고개만 끄덕이는 구성원들뿐이라면 이미 성장을 멈추었거나, 지속가능한 조직과는 거리가 멀어졌다는 증거일 것이다.  
 은펜클럽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읽는 코너입니다.

社說

여수 기름 유출, 사후 수습도 엉망이라니

여수 원유 유출사고가 해경과 GS칼텍스 측의 늑장 대응으로 화를 키운 것도 모자라 사후 수습 대책마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어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유출된 기름은 현재 경남 남해 앞바다까지 10km이상 확산되고 있으며, 그 반경 내에 있는 여수 인근 바다는 여전히 기름띠가 떠다니고 있다.  
 이로 인해 여수 신덕해수욕장 앞 감미역, 꼬막·바지락·새조개 양식장 등 51개소(12㎢)는 출하를 앞두고 직격탄을 맞아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게다가 방제작업이 닷새째 이어지면서 바위와 모래 등의 기름을 제거하던 신덕마을 주민들 가운데 39명이 두통과 호흡 곤란, 구토 등의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당국은 방제작업에 투입된 주민과 자원봉사자들 일부에게만 방제복과 방독 마스크를 주고 있으나 방제작업이 얼마나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 단적으로 말해준다.

휴게소 내 교통사고 방지대책 서둘러야

최근 일가족 등 5명을 사상케 한 곡성 휴게소 교통사고와 관련해 휴게소 진입이 고속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3년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모두 250여 건에, 15명이 숨졌으며 400여 명이 다쳤다. 한마디로 휴게소가 안전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곡성휴게소 사고만 해도 그렇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를 낸 운전자 이모(여·53)씨는 고속도로에서 휴게소로 진입하며 제한속도인 시속 40km를 지키지 않은 채 과속으로 돌진, 일가족을 덮쳤다. 이로 인해 2명이 죽고 3명이 부상을 당했다. 휴게소 진입로 가까이에 주차해놓고 휴식을 취하던 일가족이 참변을 당한 것이다.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은 당장 실태 파악에 착수해 구체적 교통안전 시설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 아울러 휴게소 등지에서 운전자의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과속방지 캠페인을 펼치는 것도 고려해 볼 일이다.

無等鼓

중세 유럽에서는 남편을 독살하기 위한 ‘상속분말(相續粉末)’이 크게 유행했다. 상속을 노려 남편 살해가 은밀하게 이뤄지는 사실은 1695년, 남편에게 독약을 먹인 팜파탈(Femme fatale·악녀)들이 자신들의 고해신부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수사 결과, 여성들은 ‘효과가 확실하면서 아무 맛도 나지 않고 투명하면서 천천히 퍼지는 독약’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독약을 팔았던 과부 점쟁이는 고문을 받은 뒤 처형됐지만 곧바로 나폴리의 ‘토파니아’라는 여성이 또 다른 상속분말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쿠아 토포니아’라는 독약을 제조해 ‘상가신 친척들을 제거하기 위한 설명서’와 함께 공급했다. 이 약은 4남매이던 목욕을 탈성할 수 있을 만큼 효과적이었다고 한다. 학자 찰스 맥케이도 자신의 책 ‘대중의 미망과 광기’에서 ‘과부로 행복한 인생을 즐기기 위해 남편을 독살한’ 로마의 청상과부 클럽을 소개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상속에 안달 난 사람들이 당시 사용했던 ‘상속분말’이 비소(Arsenic)를 주재료로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비소는 간단한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값이 싸며, 구충제나 치료약 등으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어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형태도 실랑과 비슷하게 보이는 흰색 분말인데다, 약간 단맛이 나지만 배새나 변색의 걱정 없이 음식이나 음료에 섞을 수 있다는 장점도 비소의 인기에 한몫을 했다. 중독증상 역시 일반적인 어서 중독자는 플레라를 비롯한 흔한 질병에 걸린 것처럼 구토와 설사, 탈수 증상을 보이다가 갑작스럽게 소근로 죽었다.  
 이처럼 비소의 은밀한 효능이 각광을 받으면서 미국 남부 필라델피아에서는 1930년대 말 24명의 여성이 ‘상속분말’을 사용, 결국 유죄선고를 받기도 했다. 무참한 일이지만, 돈을 좇아 가족의 죽음을 고의로 앞당기려는 시도는 지금도 진행중이다. 우리 주변에선 청부살해나 원인 모를 화재, 번개탄 등 다른 형태의 상속분말이 조용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말, ‘인간성 회복’이라는 말조차 꺼내기 무색해진 요즘이다.  
 /홍행기 사회1팀장 redplane@kwangju.co.kr

상속분말

기고



이건호  
전 화순YMCA 이사장

현대사회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 마치 카오스처럼 이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나아가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서구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었던 구한말시대가 연상되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채 해를 넘기더니 철도노조 파업, 의료민영화 등 사회적 분위기가 사투 어수선하기만 하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항은 차치하더라도 국민들의 외침은 늘 허공에 메아리일 뿐이니 오늘날 다수의 시민들이 정치에 냉소적이거나 진절머리를 내는 것은 정치가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물들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정치가 왕조사회보

탈무드를 통해 배우는 지도자의 자질

다 더 못하다는 세간의 혹평을 정치지도자들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갑오년 새해에는 정치적으로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등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해이다. 연초부터 지방선거가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선점해더니 마치 여야국회는 이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이번 지방자치 선거만큼은 정당이나 이후보자의 공약(公約)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된지 어제오늘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누가 진정 정치지도자의 자질을 갖췄는지 꼼꼼하고 냉철하게 살펴야 한다. 이에 지도자의 자질과 관련한 우화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한다.  
 뱀의 꼬리는 항상 머리가 가는 대로 따라 가야 하는 게 살아서 머리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자 머리는 “너는 앞을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위험을 분간할 수 있는 귀도 없고 행동은 결정할 뇌도 없잖아?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거야.”라고 대답했다. 꼬리는 여전히 “그따위 말들은 이제 싫잖아 나. 독재자나 폭군도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위해 일한다는 구실로 제 마음대로 하잖아!”라고 불평하자, 결국 머리

가 꼬리에게 선두를 양보했다. 그런데 뱀의 꼬리가 앞장을 서 기어가다 도랑에 떨어지고, 가시톱볼로 들어가 상처투성이가 되더니 결국 뜨거운 불길 속으로 들어가 죽고 말았다.  
 이 우화는 탈무드에 나오는데 이야기이다. 뱀의 머리가 가지고 있는 뇌와 눈과 귀는 정치지도자가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과 관계가 깊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정치지도자가 갖춰야 할 자질을 상인의 현실감과 서생의 문제의식이라고 설화한 바 있는데 이는 우화에 나오는 뱀의 뇌와 눈을 의 미한다. 그리고 정치지도자가 갖춰야 할 자질 중 으뜸인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려는 마음의 자세, 즉 소통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 깊은 것이 뱀의 귀다. 그러기에 지난해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최대의 정치적 회두가 ‘소통’이 아니었나 싶다.  
 그런데도 오늘날 다수의 정치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기는 고사하고 자기주장만 내세울 뿐,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는데 급급하다. 누가 민족의 지도자였는지에 따라 외환위기를 맞기도 하고 외환위기에서 벗어나기도 했다. 이

처럼 한 나라의 정치지도자 선출은 실로 한 국가의 존망이 걸릴 만큼 중차대한 문제이다. 지역사회도 예외일 수는 없다. 누구를 지역사회의 지도자로 선출하느냐에 따라 지역사회의 명망이 갈리기 때문이다.  
 지역사회는 지역사회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과 함께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미시적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진영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함께 소통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사회의 지도자라 처처하면서 알팍한 권모술수와 조삼모사로 타인을 현혹시키거나 지역사회를 내 편과 네 편으로 분열시키는 뱀의 꼬리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더구나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독신의 모습은 더더욱 지역사회의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은 아니다. 그로 인한 지역사회와 오명과 이미지 실추는 오토이 지역민에게 안거지기 가깝이나 부실한 대학은 더 부실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  
 당국은 지방에서 중국인 유학생으로 정원을 메우는 대학에 대해 적절한 규제를 가하고, 중국인 유학생 수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

중국인 유학생 중에는 학업은 내팽개치고 돈벌이에만 매달리다가 불법 체류자가 되거나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있을 것이다. 공부에 뜻이 없는 유학생들이 교실을 채우면 공부를 하려는 국내 학생들까지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수업의 질은 더 떨어지고 가짜이나 부실한 대학은 더 부실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  
 당국은 지방에서 중국인 유학생으로 정원을 메우는 대학에 대해 적절한 규제를 가하고, 중국인 유학생 수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  
 ▲이기태·광주시 광산구 울목동

중국인 유학생 마구잡이 유치하는 대학 규제해야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 와 있는 중국인 유학생 숫자가 작년에 무려 6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10년 전보다 50배나 폭증한 숫자라는 것이다.  
 물론 이게 지리적으로 가깝고 조선족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감안한다 해도 유학생 국적이 중국 한 나라에 편중돼 있다는 것은 정상으로 보기 어려운 일 아닐까.  
 급년도 초에 대입시가 끝난 후 신문기사를 보니 국내에는 4년제 대학이 200개가 있

는데 이중 입학정원의 70%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30개나 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방대 중에는 어렵게 입학정원을 맞춰도 2학년만 마치고 수도권 대학으로 편입해가는 학생들 때문에 구멍이 뿔 뚫려 있는 곳이 더욱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대학들은 이렇게 빠져나간 한국 학생들 자리를 어떻게 메울까? 그게 바로 중국인 유학생들이다. 이 때문에 중국인 유학생이 전체 재학생의 10%를 차지한 대학도 있다

<p><b>光 州 日 報</b></p>		<p><b>The Kwangju Ilbo</b></p>	
<p>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논설주간 <b>申培樂</b> 편집국장 <b>奇賢鎔</b></p>		<p>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p>	
<p>편집국내대 (대표 FAX 222-4918)</p>	<p>경 제 부 2200-663 문 화 1부 2200-661 문 화 2부 2200-651</p>	<p>경영지원본부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p>	<p>문화 사업국 2200-541 (F A X 227-9600) (F A X 2200-551)</p>
<p>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12</p>	<p>여론대체부 2200-621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16</p>	<p>광고매케팅국 227-9600 (F A X 227-9500) (F A X 227-9500)</p>	<p>독자서비스국 2200-551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p>
<p>(대표 FAX 222-4918)</p>	<p>사 진 부 2200-693 조 시 부 2200-571</p>	<p>디 지 털 팀 2200-536 프 로 젝 트 팀 2200-555</p>	<p>서울지국 10,000원 1부 500원</p>
<p>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p>			